

[02.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

1편에서는 문장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성분과 품사를 설명한 후에 문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1형식 문장부터 3형식 문장까지 설명했었다. 이번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을 공부해보겠다.

4형식 문장

주어(S)+동사(V)+간접목적어(I.O)+직접목적어(D.O)
[주어]가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동사]하다

1편에서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였고, 이 목적어는 3형식문장에서 쓰인다고 했었다. 그런데 4형식 문장에 목적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성분이 2개나 있어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 대화를 보면서 3형식과 4형식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A: 너는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해?

What do you like sports?

B: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

I like playing soccer.

→여기까지는 저번에 공부했던 3형식 문장이다. 목적어가 '-을/를'로 끝났다.

A: 그러면 누가 너에게 축구를 가르쳐주셔?

Then, Who teaches soccer for you?

B: Mr. Lee이 나에게 축구를 가르쳐주셔.

Mr. Lee teaches me soccer.

S V I.O D.O

→이 대화에서의 B의 대답이 바로 4형식 문장이다. '축구를' 부분은 전편에서 설명했던 목적어 부분이다. 그런데 4형식 문장에서는 3형식 문장과는 다르게 '나에게'와 같이 '~에게'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을 간접목적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4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2개 쓰이는 것이다. '~가 ~에게 ~을/를 ~하다.'로 해석된다. 이 해석에서 '~에게' 부분은 **간접목적어**, '-을/를' 부분은 **직접목적어**가 된다.

•**간접목적어**(I.O, Indirect Object): 문장에서 '~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주로 사람명사가 간접목적어로 많이 쓰인다. 4형식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는 주다, 물어보다, 빌려주다와 같은 동사인데 보통 사람에게 물건을 빌리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암기가 쉬울 것이다.

•**직접목적어**(D.O, Direct Object): 문장에서 '-을/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형식 문장에서의 목적어와 해석이 같다.

[예문]

1. He gave me a computer.
2. I cooked my friend a Pizza.
3. I asked him how to solve the problem.

5형식 문장

주어(S)+동사(V)+목적어(O)+목적격 보어(O.C)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동사]하다.

※아래 대화를 통해서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A: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무엇을 했어?

B: I went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다녀왔어.

A: How was the concert?

그 콘서트는 어땠어?

B: It(=The concert) made me excited.

S V O O.C ----->5형식 문장.

그 콘서트는 나를 신나게 만들어 주었어.

위 대화에서의 마지막 문장이 5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은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 등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온다. B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관람한 후에 신났기 때문에 콘서트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A의 질문에 마지막 문장과 같이 대답한 것이다. 콘서트를 관람한 후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The concert를 주어로 설정하고, 목적어를 B자신으로 설정한 뒤에 콘서트가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격 보어를 사용한 것이다.

3형식 문장에서의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특성 등을 서술했지만, **5형식 문장에서의 목적격 보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을 서술한다는 것이 주격 보어와의 차이점이다.

※목적격 보어: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문장성분

※주격 보어: 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태나 특성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문장성분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이다.

[예문]

1. The exam made him sad.
2. Citizens elected Tom mayor.
3. I think the homework hard.

[예문해석]

1. 그 시험은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2. 시민들은 Tom을 시장으로 선출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mayor이 Tom과 동격이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쓰였다.

3. 나는 그 숙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이제 문장구조 파악의 제일 기본이 되는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앞으로 영어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보길 바란다. 그런데 문장이 길거나 중간에 수식어가 들어간 문장은 문장의 형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 때는 필수 문장성분을 우선 찾아내서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면 되지만, 나중에 문장의 형식의 파악이 쉬워 졌을 때에는 문장의 형식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문장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끊어 읽는 것이 익숙해져야 한다. 앞으로 이 자료를 계속 보게 된다면, / 표시로 문장을 끊은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 표시를 하거나 문장에서 해석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 큰 의미 덩어리로 나누는 경우이다. 한 문장에서 두 가지의 경우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 표시를 보면서 왜 문장을 끊었는지 파악하면, 아마도 실전에서 쉽게 문장을 적절히 끊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